

‘부동산 失政’ 성토장 된 국회

동교동계, 정계개편 주도 할까

■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답변

“정책라인 경질” 여야 한목소리 추진교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국회의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치솟는 집값에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처방전’ 낱말로 인한 시장의 신뢰상실을 맹렬히 질타했다. 부동산 정책라인의 교체론에도 여야가 따로 없었다.

신중치 못한 정책발표와 글로 물의를 빚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문책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주문이었다. 먼저 여당내 재선의원들이 ‘인적쇄신론’으로 포문을 열었다.

여당의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책임부서가 어디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부동산 정책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추 장관을 겨냥, “신도시 발표는 관련부처나 당 정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져 또다른 혼선과 투기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많다”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후속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비단 강도는 훨씬 높았다. 정병국 의원은 “이백만 수석은 10

여8천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0억원이 넘었다는데, 이런 현실에서 서민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서민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주도 해온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건교부장관 등을 해임하고 8.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표창도 모두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믿는 국민이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현 정부는 이슬우하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은 여야 또는 개별의원에 따라 달랐다. 여당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한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공급 확대에 무게중심을 뒀다.

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모든 항목에 걸친 분양원가 공개를 주문한 데 이어 ▲채권인할계 폐지 및 공공택지 확대 적용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차단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세금폭탄, 금융규제, 마녀사냥 등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접근은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의 부동산 관련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며 적극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퇴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고, 한병숙 총리는 답변에서 “정책팀 인사와 관련해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고 경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쓴 “지금 집사면 낭패”라는 청와대 브리핑 글이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서민들의 상심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청와대측과)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J 관련 행사 잇단 참석 옛 동지애 과시 與·민주 인사 물밑 접촉 조정역 할 수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 부쩍 활발해지면서 향후 정계 개편 과정에서 ‘동교동 사람’들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 고루 포진한 범동교동계 인사들이 김 전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 참석을 연결고리로 접촉기회가 찾아진 만큼 모종의 역할론에 공감대를 넓혀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지난 8월 ‘DJ 도교피랍 생환기념 행사’를 계기로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데 이어 이달 2일 열린 ‘김대중 도서관 후원회 발족’ 행사에도 대거 참석해 옛 동지

애를 과시했다. 또 이들은 내달 초순으로 예정된 ‘DJ 노벨상 수상 6주년 기념 행사’에도 나란히 참석해 한 차례 더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 내 ‘통합신당론’, 민주당의 ‘해체모여식 신당창당론’과 관련, 동교동계는 양당 내 정계개편 물밑논의를 조율하면서 ‘거중조정역’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당 비대위원인 문희상 배기선 의원은 ‘통합신당론’을 견지하며 당내 각계약진식의 정계개편 논의

를 교통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역별 의원모임 등에도 참석해 정계개편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화갑 대표, 배기운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철상 전 의원, 전갑길 전 의원 등 민주당의 동계동계 인사들은 16일 발도오찬 회동을 갖고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한 동교동계 인사는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의미있는 회동을 했고, 야당이 내부적으로 상황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정계개편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김 전 대통령 행사를 계기로 동교동계 인사들이 꾸준히 공식·비공식 만남을 가져 오 만큼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지역위원장 경쟁률 3.3대1

광주·전남 12곳 40명 응모

지난 11일 마감된 민주당 광주·전남지역위원장 공모에는 광주 4개 지역 15명, 전남 8개 지역 25명 등 12개 지역에 모두 40명이 각각 응모해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당은 일부지역의 경우 추가 공모 과정을 거쳐 등 조강특위의 심사를 거쳐 25일까지 인선을 확정하고 27일째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응모자 명단. ◇광주 ▲동구=박주선 전 국회의원, 임흥채 광주시당 사무처장, 김경천 전 국회의원, 김중배 전 국회의원, 오형근 성형외과 의사 ▲서을=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길도 전 서구의원, 이신백 민주당 민생경제특위 위원장, 이영천 호남대 교수, 이정일 전 서구청장 ▲남구=나종현 광주시의원, 이만영 전 청와대 비서관, 정병식 전 남구의회의장, 추한창 광주시당 상무위원회 부

의장 ▲광산구=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

◇전남 ▲여수갑=김종철 전남도의회 의장, 김홍석 전 여수시장, 송대수씨 ▲여수을=김인수씨, 서일용씨, 차성업씨 ▲순천=김철신 전 전남도의회 의장, 박흥수씨, 이승국씨, 신택호 변호사, 허정인 전 전남도의원 ▲장흥=김성진 전 전남도의원, 김강남 전남도의회 부의장 ▲영암=강우원 전남도의원, 김철호 전 영암군수, 한영택씨 ▲강진=김영호씨, 이효복씨, 차봉근 전 전남도의회 의장 ▲해남·진도=채일병 국회의원 ▲완도=박현호씨, 이종순씨, 차영우 전 전남도의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전 의원 광주 동구로 U턴?

민주 지역위장 공모 신청서 제출 “정치행보 잦다” “구당 차원 응모”

박주선 전 국회의원(사진)이 민주당 광주시 동구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마감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광주시 동구지역에서는 박 전 의원 등 5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단연 관심을 끄는 인물은 박 전 의원. 광주교수석 졸업, 사법고시 수석 합격에 이어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는 17대 총선에서는 보성·고흥에서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 간발의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



며 올 5·31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돌연 포기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같은 정치 행보에 대해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폄파는 것을 보니 박 전 의원이 정치행보를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동구 5천여 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서명을 했고, 중앙당 일각의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 허리는 26.5인치”

“허리둘레는 26인치 반, 몸무게는 30~40대와의 같아요.”

한나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는 13일 MBC TV ‘생방송 오늘아침’ 코너인 ‘스타 건 강’에 나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신체 사이즈를 스텝 없이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녹화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단전호흡 복장으로 삼성동 자택에서 리포터를 맞은 박 전 대표는 허리 사이즈를 묻는 리포터에게 “26인치 반”이라고 거리낌없이 얘기했다. 그는 “이 사이즈를 (예전부터) 계속(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유

광주시의원에 비난 일어

광주시의회 L모 의원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외유에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L의원은 지난 9일 광주시 동유림 시장개척단의 일원으로 출국해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에서는 15일부터 울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

돼 있어 A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절반인 3일간 출석조차 못할 처지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심의와 함께 ‘1년 농사의 결정관’이라는 게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시장감사권을 총체적으로 집행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때문에 L의원의 외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폄파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귀 덕의 자녀도 무조건 100점! 자신(自信) 있습니다!

중학 IBT 토폴 종합반

초·중 영어/수학 100점반

062-222-6253

동아익국어학원

메가퍼스트학원

쓸수록 남는 전기온풍기 - 에클로

을 겨울, 난방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클로 전기온풍기

032-561-1110

www.esmn.co.kr